

서울인디애니페스트 2026 수상작 리스트

부문	작품	감독
인디의 별	코뿔소 이슈	김정한
독립보행	THE END OF THE END	김준하
새벽비행	오리가미	문금혜
심사위원 특별상	닭잡는날	한민지
초록이상	Heat up!	오난
KIAFA 특별상	죽어도 사는 새	노유경
음악/사운드 부문상	바람	Wa.b SOUND
KAFA 특별상	바람	장효빈
축제의 별	THE END OF THE END	김준하
랜선비행상	Nowhere to Go	시승현
랜선비행 관객상	버터라 영업3팀	이용선, 김성근, 이수아
아시아로 대상 '아시아의 빛'	Xiao Xue	시 첸
아시아로 심사위원 특별상	One, Two, Three, Four, Five, Six	잉단 라이
아시아로 관객상	Where My Father Remains	야스테루 오노
미리내로 대상 '미리내의 별'	Zsazsa Zaturnnah	아비드 리웅고렌
관객심사단상	Vegetable	김슬비
애니 WIP 피칭	기억의 집	이승언

서울인디애니페스트2026 수상작 발표 및 심사평

Seoul Indie-AniFest2026 Award Announcement

[독립보행/새벽비행 심사총평]

총 43편의 귀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속도가 사유의 시간을 압도하고, 테크놀로지가 유령처럼 출몰하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의 화두가 무엇인지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출품작들은 실험적 단편부터, 다큐멘터리 작품, 탄탄한 서사와 연출 기반의 수려한 작품, 그리고 내면으로 침잠하는 회화적 양식들부터, AI를 기반으로 한 작품들에 이르기 까지 저마다 두루두루 각자 존재의 함성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심사는 오랜시간 동안 숙고와 토론을 거쳐야 했으며, 작품의 완성도와 주제의식, 서사와 표현, 정체성 등에 심사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작품들뿐만 아니라, 모든 출품작들 간의 간극이 크지 않았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선정되지 못했던 작품들 중, 늙은 사진작가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꽃 사진을 찍는 남자>, 한 여성의 결핍에 대한 이야기 <핑거뱅>, 그리고 할아버지의 추억을 다룬 <연근> 등이 심사과정에서 특별히 언급되었음도 밝힙니다.

끝으로 지난해 심사위원이었던 고 허범욱 감독의 글월을 빌려 인사를 갈음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해주신 동료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박수를 보냅니다.” (한태식)

There were 43 precious works in total. In an age when speed overwhelms the time for reflection and technology haunts us like a ghost, this was an opportunity to consider what our central question truly is. The submissions ranged from experimental shorts and documentaries to elegant works built on solid narrative and direction, from introspective, painterly styles to AI-based works, each raising a cry of its own existence. For that reason, the judging required long hours of deliberation and discussion, and our criteria centered on completion, thematic awareness, narrative and expression, and identity. Even so, I would like to add that the gap was not large, not only among the selected works but among all the submissions.

I would also like to note that among the works that were not selected, the documentary <A Man Who Takes Pictures of Flowers> about an elderly photographer, <Fingerbang>, a story about a woman's sense of lack, and <yeongun>, about a grandfather's memories, were specially mentioned during the judging process.

Finally, I would like to close by borrowing the words of the late director HUR Bumwook, who served as a juror last year: "To all of my colleagues who stayed with us and never gave up in an environment harsher than ever, I offer my deepest respect and applause." (HAN Tae-sik)

• 대상 ‘인디의 별’ Grand Prize ‘Star of Indie’

[코뿔소 이슈 Rhino Issue] 김정한 KIM Junghan

통증은 개인의 내부에 침잠해 있었다. 테두리는 견고한 푸른색의 외곽선으로 뒤덮여 있으며, 그 너머는 혼하디혼한 충실한 참새 때들이 감시한다. 성장의 딜레마는 이 통증을 사적문제로 해결되길 원하는 것에서 등장한다. 반항, 질풍노도, 사춘기라는 말들이 재잘거리며 사회에서 흔하게 소비되는 것은 이것이 사적 영역 이상으로 확장되는 것을 감시 통제하는 언어적 장치들이다. 하지만 모든 성장이 사적 문제로 자리 잡기는 어렵다.

이 작품에서 소년이 메마른 선과 색면의 공간에서 시작해 풍부하고 질감있는 야수적 회화의 공간을 지나 통증과 마주한 - 그러나 안정적인 - 그 롱샷(long-shot),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거대하고 무서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린 그의 통증이 사적인 영역이 아닌 사회적 영역에 속하고 있음도 발견하게 된다. 움직이는 색채로 빚어낸 사회학적 상상력(The Sociological Imagination). 그래서 이슈(issue)가 맞다. 그러니 이제 나도 이제 춤을 춰야겠다. 에리카 러셀(Erica Rusell) 처럼이 아니라, 이 작품

속 그들처럼. (한태식)

The pain had sunk deep within the individual. Its boundary is covered by a solid blue outline, and beyond it, a flock of ordinary, faithful sparrows keeps watch. The dilemma of growing up arises from the wish to resolve this pain as a private matter. Words like "rebellion," "storm and stress," and "adolescence" are chattered about and casually consumed throughout society, and they are linguistic devices that monitor and control this pain so that it does not extend beyond the private sphere. But not every kind of growth can settle into being a private matter.

In this work, the boy begins in a space of parched lines and flat fields of color, passes through a space of rich, textured, Fauvist-like painting, and arrives at a long shot in which he faces the pain, yet remains steady. In that shot, we come to see that the pain is not so enormous or frightening after all. And at that moment, we also discover that his pain belongs not to the private sphere but to the social one. It is a sociological imagination wrought in moving color. So it is, indeed, an issue. And so now I, too, must dance. Not like Erica Russell, but like the figures in this work. (HAN Tae-sik)

• 독립보행상 Prize for Independent Walk

[THE END OF THE END 끝이 끝나는] 김준하 KIM Junar

불이 꺼진 극장, 천천히 막이 오르면 장인이 공들여 만든 듯한 황동 무대 위로 수은과 쇳물로 그려진 회화 작품들이 펼쳐집니다. 오랜 시간 입에서 입으로 구전된 노랫말 조각들이 모여 웅장한 종소리로 울려 퍼질 때, 저는 묘한 압도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감독님의 창작의 열매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피어나기를... (이진우)

In the darkened theater, the curtain slowly rises, and upon a brass stage that seems lovingly crafted by a master artisan, paintings rendered in mercury and molten iron unfold. As fragments of lyrics, passed down by word of mouth over many generations, gather and resound as a majestic peal of bells, I am swept up in a strange sense of being overwhelmed. And I pray that the fruits of the director's creativity will never come to an end, and that they will continue to bloom... (LEE Jinwoo)

• 새벽비행상 Prize for First Flight

[오리가미 origami] 문금혜 MUN Keumhye

영상이 관객에게 남기는 가장 큰 힘은 결국 감정을 움직이는 데 있을 것입니다. 이 작품은 7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부정'이라는 복잡한 감정을 절제된 이야기와 섬세한 연출로 깊이 있게 담아냅니다. 기술적 완성도 또한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아버지라는 존재와 그 관계의 의미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드는 정서적 울림이 인상적입니다. 짧은 러닝타임 속에서도 감정을 차분히 쌓아 올려 마지막까지 먹먹한 여운을 남기며, 애니메이션만의 표현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살린 연출이 돋보입니다. (이강규)

The greatest power a film leaves with its audience ultimately lies in its ability to move emotions. In just seven minutes, this work captures the complex emotion of "paternal love" with depth, through a restrained story and delicate direction. Its technical polish is also outstanding, but above all, what left an impression on me is the emotional resonance that leads us to reflect anew on the meaning of the father and the relationship with him. Even within its short running time, the film builds emotion steadily, leaving a lingering, heavy-hearted resonance until the very end, and its direction, which makes effective use of the expressive possibilities unique to animation, stands out.

(LEE Gang-gyu)

• 심사위원 특별상 Jury Special Prize

[닭잡는날 The Day the Chicken was Killed] 한민지 HAN Minji

연출자는 창작 과정에서 '관객이 이해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친절하게 설명하려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망설임 없이 관객을 이야기의 한복판으로 던져버린 채 기분 좋게 질주합니다. 거친 비포장도로를 달리듯 덜컥거리면서도 "이 도로는 원래 이래"라고 말하는 듯한 당당함에 쾌감마저 느껴집니다. 약간은 불친절하고 막무가내일지라도, 이 신들린 듯한 질주에 기꺼이 동승자가 되고 싶어집니다. (이진우)

In the creative process, a director can easily be gripped by the anxiety of "What if the audience doesn't understand?" and feel compelled to explain everything kindly. This film, however, hurls the audience into the heart of the story without hesitation and races ahead with infectious energy. Even as it jolts along like a ride down a rough dirt road, its confidence, as if to say "This is just how this road is," is exhilarating in itself. It may be a little unfriendly and headstrong, but I find myself gladly wanting to ride along in this almost possessed dash. (LEE Jinwoo)

• 초록이상 Special Prize for Debut Film

[Heat up 데우자!] 오난 OH Nan

사람의 온기가 다가온다. 차갑던 손이 따뜻해지고, 얼어붙은 마음이 열리고, 웅크렸던 살갗들이 펴지더니 이내 모두 기지개를 편다. 생명. 애니메이션의 원초적 동의어. 이 작품은 시시하고 보잘것없이 웅크린 모든 사물들에 온기를 가하고 있는 작가의 시선 자체이며, 향연이다. 그 온기는 이내 모든 사물들이 프레임이 되어 기지개를 펴고, 움직이고, 생명을 얻게 만든다. 애니메이션 작가는, 애니메이터는 그런 능력을 가진 히어로다. 그러니 제발 지구는 걱정하지 말자. 여차하면 적당히 온기로 &데우면&되는 것이니까. (한태식)

The warmth of a person draws near. Cold hands grow warm, frozen hearts open, and skin that had been curled up unfolds, until everything stretches awake. Life. The primal synonym of animation. This work is itself the gaze of an artist who lends warmth to every humble, insignificant thing curled up in a crouch, and it is a feast of that gaze. That warmth soon lets every object become a frame, stretch, move, and come to life. An animation artist, an animator, is a hero with such power. So please, let us not worry about the Earth. If it comes to it, we can simply "warm it up" with a little warmth. (HAN Tae-sik)

• KIAFA 특별상 KIAFA Special Prize

[죽어도 사는 새 The Bird Lives On] 노유경 NOH Yukyung

상실이라는 슬픔을 미화하지도, 감정적으로 과장하지도 않고 어쩌면 담담한 그대로의 시간으로 표현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창작자의 마음에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작은 순간들을 바라보는 섬세한 감각과 캐릭터의 매력을 살려내는 목소리 연기가 작품에 특별한 생기를 더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존재를 잃은 뒤에도 그 사랑이 내 안에 남아 나를 변화시킨다는 이야기가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이 작품이 건네는 다정한 위로와 함께, 앞으로도 자신만의 이야기를 이어갈 창작자의 행보를 마

음을 담아 응원하고 싶습니다. (주아람)

By portraying the sadness of loss without romanticizing or exaggerating it, but rather through the quiet and honest passage of time, the animation reveals a creator with a distinctive and deeply affectionate approach to storytelling. Its delicate attention to small moments, along with the voice performance that brings out the characters' charm, gives the work a unique sense of vitality. The idea that love remains within us and continues to change us even after we lose someone we love leaves a lasting warmth. It offers a gentle sense of comfort while expressing a sincere and distinctive creative voice, leaving us with a sense of anticipation for the creator's continuing journey. (Rachel JOO)

• 음악/사운드부문 특별상 Special Prize for Music/Sound

[바람 Wind] 와비 사운드 Wa.b SOUND

작품에 시각적인 설득력을 부여하는 것이 이미지라면, 사운드와 음악은 청각적인 설득력을 만들어냅니다. 현장의 작업자로서 그 기본적인 역할을 해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 선보인 많은 작품에서 사운드와 음악이 그 역할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애니메이션 감독님들도 작품들을 감상하시면서 소리의 중요성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음악을 하는 입장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첫째로, 이번 영화제에서도 훌륭한 작업자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느꼈고, 그분들의 작업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음 작품에서는 이분들과 꼭 한번 작업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둘째로, 선정되지 않은 작업자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작품들은 하나같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번 음악/사운드부문 특별상을 선정에서는 사운드와 음악이 이미지와 만나 작품의 감상과 작품성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현실의 구체적인 소리들로 공간과 인물, 계절과 시간에 숨을 불어넣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은 프레임 안뿐만 아니라 프레임 바깥의 세계와 역사의 한 장면까지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8분 남짓한 작품을 더욱 크고 깊게 감상할 수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해원)

If images make a film convincing to the eye, sound and music make it convincing to the ear. As someone working in this field, I sometimes feel that fulfilling this fundamental role is the hardest task of all. In many of the films presented at this year's festival, sound and music fulfilled that role beautifully. I imagine the animation directors here also felt the importance of sound as they watched these films.

As a musician, I would like to say two things.

First, this festival reminded me once again just how many wonderful artists are working in sound and music, and I was deeply moved by their work. I encourage you to collaborate with these artists on your next films.

Second, I would like to offer my sincere apologies to those whose work was not selected. All of your work was truly wonderful.

In selecting the winner of this year's Special Prize for Music / Sound, our main consideration was how much sound and music, together with the images, contributed to the viewing experience and the film's artistic achievement. One film breathed life into spaces and characters, seasons and time through the concrete sounds of the real world. Those sounds allowed us to sense not only the world within the frame, but also the world beyond it and a moment in history. I would venture to say that its sound allowed us to experience this film of just over eight minutes with a far greater sense of scope and depth. (KIM Haewon)

• KAFA 특별상 KAFA Special Prize

[바람 Wind] 장효빈 JANG Hyobin

여러분은 예술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종종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눈을 감거나, 애써 무감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예술가들은 그 어둠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통과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온 작품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아픔을 체험하게 하고, 나아가 약자와 연대하는 길을 비춰줍니다. 저희 한국영화아카데미 동문회는, 아름다운 화면과 현장감 있는 사운드, 그리고 탁월한 연출력을 통해, 역사적 비극을 먼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마주해야 할 기억으로 불러내신, 이 작품에 카파 특별상을 드립니다. (노경무)

Why do you think art is necessary? I am sure each of you has a reason of your own that comes to mind. At times, people close their eyes to the suffering of others, or deliberately make themselves numb. Artists, however, pass through that darkness as though it were their own. The works that emerge in this way allow us to experience pain we had not known, and further, illuminate a path toward solidarity with the vulnerable. On behalf of the Korean Academy of Film Arts (KAFA) Alumni Association, we present the KAFA Special Award to this work, which, through its beautiful visuals, immersive sound, and outstanding direction, summons a historic tragedy not as an event of the distant past, but as a memory we must confront right now. (NOH Gyeongmu)

• 관객상 '축제의 별' Audience Choice 'Star of Festival'

[THE END OF THE END 끝이 끝나는] 김준하 KIM Junar

[랜선비행 총평]

‘랜선비행’의 특성에 걸맞게 소재와 형식, 표현 방식은 물론 각 작품만의 개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만날 수 있어 무척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마다의 매력을 가진 작품들 가운데 한 편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 심사위원으로서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작품을 깊이 고민하며 바라보는 과정 자체가 저에게도 새롭고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랜선비행’의 출품된 작품들은 전통적인 상영 공간을 넘어 애니메이션이 관객과 만나는 저변을 넓혀가는 의미 있는 도전을 하는 작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을 걷고 계신 모든 감독님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며, 앞으로의 여정에도 좋은 결과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임용기)

It was a genuine pleasure to encounter such a diverse range of animations in the Web Animation category. True to the nature of the category, each work stood out not only for its subject matter, form, and mode of expression, but also for its own distinct individuality.

At the same time, having to choose just one film from among works that each possess their own charm was no easy task for us as a jury. Nevertheless, the process of looking deeply and thoughtfully at so many works was itself a new and valued experience. We believe the works submitted to Web Animation represent meaningful endeavors that broaden the ways in which animation reaches audiences beyond traditional screening venues. We would like to offer our support to the new challenges of all the directors walking this path, and we wish you every success on the journey ahead. (LIM Yong-gi)

- 랜선비행상 Prize for the Best Web Animation

[Nowhere to Go 노웨어 투 고] 시승현 SI Seunghyun

시작하자마자 독창적인 감각에 매료되었습니다. 독창성은 자칫 잘못하면 낯설음으로 다가 올수 있지만 이 작품은 독창성을 신비로움으로 꽃피워 주었습니다. 그 꽃이 하늘거릴때 마다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선, 색, 형태, 움직임 등 감각적인 요소만으로 감정을 건드리는건 애니메이션의 핵심이자, 정말 담기 어려운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서 울컥하는걸 참느라 심사 메모하는걸 깜빡했습니다. (과나)

From the very beginning, I was captivated by the film's originality. Originality can easily come across as strange or alienating, but this work allowed its originality to blossom into a sense of mystery. Each time that flower swayed, my heart was stirred. I believe that moving an audience through sensory elements alone, such as line, color, form, and movement, lies at the very heart of animation, and it is also exceptionally difficult to achieve.

I was so busy holding back my emotions while watching that I forgot to take my judging notes. (gwana)

- 관객상 ‘축제의 별’ Audience Choice 'Star of Festival'

[버터라 영업3팀 Hang On! Sales Team 3] 이용선, 김성근, 이수아 LEE Yongsun, KIM Seonggeun, LEE Sua

[아시아로 총평]

아시아 애니메이션의 현재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아시아로’ 섹션과 함께한 시간은 다채로운 주제와 형식의 작품들로 가득한, 그 자체로 충만한 영화적 경험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역사적·사회적 배경과 제작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고군분투하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작품들을 만나며 때로는 감탄하고, 때로는 깊이 공감하며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쟁과 환경, 가족과 단절에 이르기까지 동시대의 다양한 문제의식이 저마다의 시선과 형식으로 펼쳐지는 과정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애니메이션 고유의 기법과 미학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한 작품들이 많았다는 점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표현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면서도 애니메이션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움직임과 이미지, 상상력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으려는 창작자들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출발한 작품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로’가 보여준 현재는 곧 아시아 애니메이션의 미래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마다의 개성과 매력으로 가득한 작품들 가운데 수상작을 선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오랜 숙고와 논의를 거친 끝에, 개인의 이야기에서 출발해 사회와 보편적인 이야기로 확장되는 힘,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짜릿한 완성도를 함께 보여준 두 편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상작을 비롯해 모든 작품과 창작자들의 용기와 탐구에 깊은 응원을 보냅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시선, 그리고 무한한 상상력이 만나 만들어낸 ‘아시아로’의 여정이 앞으로도 아시아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모은영)

Our time with the "ASIA ROAD" section—a platform bringing together the present state of Asian animation—was in itself a deeply fulfilling cinematic experience, rich in diverse themes and artistic forms. Experiencing these works, which forged their own stories in distinct ways despite varying historical, social backgrounds, and production conditions, inspired our admiration, deep empathy,

and wholehearted support. It was equally moving to witness how contemporary consciousness spanning topics from war and the environment to family and isolation unfolded through each creator's unique lens and approach.

Above all, we were profoundly impressed by how many works returned to the fundamentals, wrestling deeply with the techniques and aesthetics unique to animation. The creators' dedication stood out remarkably: even as they actively experimented with new technologies and expressions, they never lost sight of the movement, imagery, and imaginative potential that only animation can achieve. In showcasing how works originating from different cultures and environments expand the boundaries of the medium in their own ways, the "ASIA ROAD" section offered an inspiring glimpse into both the present and future potential of Asian animation.

Selecting the award winners from a lineup filled with such distinct individuality and charm was no easy feat. After extensive deliberation and discussion, we ultimately chose two films that demonstrate the power to expand personal narratives into universal and societal reflections, combined with a passionate engagement with the medium and thrilling artistic craftsmanship.

We extend our warmest support and admiration to the courage and spirit of exploration shown by all the creators and their films, alongside our award winners. We hope that the journey of "ASIA ROAD"—crafted where diverse cultures, perspectives, and infinite imagination converge—will continue to serve as a vital platform for discovering new possibilities in Asian animation. (MO Eunyong)

• 아시아로 대상 '아시아의 빛' Grand Prize 'Light of Asia'

[소설 Xiao Xue] Xi CHEN 시 첸

가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절제된 카메라 워크는 인물들이 처한 제약과 억압을 드러낸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영화의 언어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마스터의 능숙함. 그 의도를 영화를 통해 고스란히 전달받는 데서 오는 짜릿함. 제약된 카메라는 관객과 인물들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만들어낸다. 그 거리를 유지하고 지켜볼 수 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소설'의 마음을 짐작하게 하는 이 카메라는 역설적이게도 제약이면서 동시에 따뜻한 시선을 품고 있다. '공중제비가 어째서 병인가' 라는 질문을 해본다. 우리는 사회화되지 않은 인간은 병자로 취급하고 취급받는 사회 속에 살고 있다. 더 넓은 세계로 떠날 수 있었던 소년은 집을 나갔지만, 집을 떠날 수 없는 소설은 여전히 그 카메라 안에 갇혀 있다. 슬픔과 한이 휘파람이 되어, 곡조가 되어 흘러나온다.

오래된 이야기이면서 지금의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이다. (정다희)

The restrained camera work, which moves only horizontally, reveals the constraints and oppression the characters face. The mastery of a filmmaker who conveys precisely the story they wish to tell in the language of cinema. The thrill of receiving that intention, fully intact, through the film. The constrained camera creates a fixed distance between the audience and the characters. We can only keep that distance and watch, yet this camera, which lets us sense what is in his heart, paradoxically embodies both a constraint and a warm gaze. I find myself asking, "Why is a somersault a sickness?" We live in a society in which people who have not been socialized are regarded as ill, and treated accordingly. The boy who could venture into a wider world has left home, but this character, who cannot leave, remains confined within that camera. Sorrow and &han& flow out as a whistle, as a melody.

It is an old story, and yet one that remains just as relevant to us today. (JEONG Dahee)

• 아시아로 심사위원 특별상 Jury Special Prize

[일, 이, 삼, 사, 오, 육 One, Two, Three, Four, Five, Six] Yingdan LAI 잉단 라이

이 작품은 반듯하게 세고 정렬하려는 세계 안에서, 끝내 붙잡히지 않는 아이의 욕망을 선과 공간의 변형으로 보여줍니다. ‘淼淼’라는 이름과 여섯 개의 초콜릿, 시선과 공간의 배치(配置) 등 작은 요소들이 촘촘하게 연결되고, 열림과 폐쇄, 자유와 통제, 돌봄과 처벌, 정돈과 붕괴처럼 서로 배치(背馳)되는 감각이 작품 전체를 관통합니다. 이러한 모순과 대비는 질서와 욕망의 충돌이라는 익숙한 이야기를 사소한 사건에서 출발해 결코 사소하지 않은 감정으로 확장시킵니다. 개성 강한 드로잉과 과감한 레이아웃은 그 감정의 흐름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며 작품만의 독특한 정서와 서사를 완성합니다. (장나리)

In a world bent on counting and aligning everything neatly, this film shows,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line and space, the desire of a child who can never be held in check. Small elements, such as the name "淼淼 (MiaoMiao)," the six chocolates, and the arrangement of gazes and space, are tightly interwoven, while sensations that stand in opposition to one another, such as openness and enclosure, freedom and control, care and punishment, order and collapse, run through the entire work. These contradictions and contrasts take the familiar story of a clash between order and desire, begin it with a trivial incident, and expand it into emotions that are anything but trivial. The distinctive drawing and bold layouts make the flow of those emotions all the more vivid, completing the work's unique mood and narrative. (JANG Nari)

• 관객상 ‘축제의 별’ Audience Choice 'Star of Festival'

[Where My Father Remains 아버지의 행방] Yasuteru OHNO 야스테르 오노

[미리내로 총평]

세 작품 모두 각기 다른 개성과 뚜렷한 장점을 지니고 있어 심사에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작은 곤충들의 큰 모험>은 사랑스러운 캐릭터와 뛰어난 애니메이션,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접목한 독특한 형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자 자투나>는 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흥미로운 인물과 풍부한 상상력, 재기 발랄한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낸 점이 돋보였습니다. <직장인 체육대회>는 직장이라는 익숙한 공간에서 영업3팀의 생존을 유쾌한 소동극으로 펼쳐내며 훌륭한 성우 연기와 높은 영화적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세 작품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의미 있는 성취를 보여준 만큼, 각 작품만이 가진 고유한 장점과 개성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김보솔)

All three films possess distinct individuality and clear strengths, which made the judging process a matter of considerable deliberation. <A Mighty Adventure> impressed with its lovable characters, outstanding animation, and a unique form that combines live action with animation. <Zsazsa Zaturannah> stood out for the way it explores questions of gender identity through intriguing characters, rich imagination, and spirited, inventive animation. <Company Sports Day> unfolds the survival of Sales Team 3 as a lighthearted comedy of chaos in the familiar setting of the workplace, showcasing excellent voice acting and a high degree of cinematic polish.

Since each of the three films achieved something meaningful in its own way, we judged them primarily by how clearly each work's unique strengths and individuality came through. (KIM Bo-sol)

- 미리내로 대상 '미리내의 별' Grand Prize 'Star of Mirinae'

[Zsazsa Zaturnnah 자자 자투나] Avid LIONGOREN 아비드 리옹고렌

이 작품은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를 유쾌하고 재기발랄한 이야기 속에 숨겨두고, 관객이 자연스럽게 그 의미에 다가가도록 합니다. 다소 거칠고 투박하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처음부터 던진 질문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영화의 중후반까지 핵심적인 주제를 끈기 있게 밀고 나가는 서사의 힘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사회적 편견과 시선의 문제를 영웅적이고 모험적인 서사 안에 녹여내면서,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정체성을 넘어 '사랑'이라는 보다 크고 보편적인 가치로 이야기를 확장해 나간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현실에서 쉽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를 애니메이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자유로운 상상력과 표현으로 풀어내어 보다 많은 관객에게 다가가고자 한 시도 역시 인상적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제작 환경 속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장편이라는 형식으로 완성해낸 열정과 집념을 포함하여, 여러 지점에서 심사위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작품이었습니다. (김보솔)

This film hides a far-from-light subject within a cheerful and spirited story, allowing the audience to approach its meaning naturally. Even in moments that feel somewhat rough or unpolished, it never loses sight of the question it posed at the outset, and the narrative persistently carries its central theme well into the second half of the film, a strength that stood out. In particular, we highly valued the way it weaves the problem of social prejudice and the gaze of others into a heroic, adventurous narrative, ultimately expanding the story beyond outward appearance and identity to the larger, more universal value of love. It was also impressive that the film sought to reach a wider audience by treating issues that are difficult to speak of in real life through the free imagination and expression that only animation can offer. Including the passion and tenacity it took to complete such a story in the form of a feature-length film despite a difficult production environment, this work resonated with the jurors on many levels. (KIM Bo-sol)

[관객심사단상]

- 관객심사단상 Prize of Public Jury

[베지터블 Vegetable] 김솔비 KIM Solbie

사회에서 쉽게 외면되어 온 문제를 브로콜리와 돼지라는 독창적인 비유를 통해 재치있게 풍자한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에서 출발한 이야기는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노동하다 결국 브로콜리가 되어버리는 인물들을 통해, 시스템 속에서 인간이 소모되는 과정을 우화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마지막에 브로콜리가 하나의 요리로 완성되는 장면은 작품 속 여러 비유를 한 접시에 담아내며, 인간의 삶마저 누군가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소비되는 현실을 함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의료보험이라는 구체적인 사회적 문제를 넘어, 돈이라는 가치를 좇으며 과도한 노동과 희생이 되풀이되는 우리 사회의 모습까지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작품의 문제의식이 더욱 확장된다고 느꼈습니다. 독창적인 소재와 완성도 높은 연출을 통해 사회의 모순을 유쾌하면서도 씩씩하게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질문을 남긴 작품이라는 점에서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관객심사단 홍혜정)

What impressed us was the wit with which the film satirizes a problem that society has long been quick to ignore, through the original metaphor of broccoli and pigs. Beginning with the American health insurance system, the story allegorically depicts how human beings are consumed within a system, through characters who labor endlessly to survive and ultimately turn into broccoli. In particular, the final scene in which the broccoli is completed as a single dish gathers the film's many metaphors onto one plate, implicitly conveying a reality in which even human lives are

consumed to satisfy someone else's desires. Moreover, the film goes beyond the specific social problem of American health insurance and brings to mind our own society, where the pursuit of money leads to excessive labor and sacrifice being repeated again and again, and we felt that this broadened the scope of the film's critical awareness. Through its original subject matter and polished direction, the film invites us to look at society's contradictions with both amusement and bitterness, and it leaves us with questions about the society in which we live. For these reasons, we selected it as the winning work.

(HONG Hyejeong, Public Jury)

[애니 WIP 피칭]

- 애니 WIP 피칭 Ani WIP Pitching

[기억의 집] 이승언 YI Seung-eon

애니메이션 제작에서 '독립' 작품은, 그 본질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변수의 풍파를 던집니다. 그럴수록 세상의 정해진 틀은 딱딱하게만 느껴집니다. 이번 심사한 작품 모두, 틀에 담기 어렵기에, 독립적이고, 그렇기에 각자의 가치 안에서 매력있고, 자유롭게 빛나는 개성있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참여하신 감독님 모두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심사과정에서는 그중에서도 작업을 끝까지 이끌어갈 명료하고 예리한 비전, 그리고 자유로움을 함께 지닌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작품의 중간과정에서 완성과 가능성을 가늠하며 평가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딸에게 있어서 엄마란 뭘까, 생각해봅니다. 딸로서 엄마를 떠올려 보자면,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시간을 공유한 존재임에도,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음에도. 그렇기에 때로 그녀들의 내면이 외려 낯설고 멀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쉽게 드나드는 가장 편한 집구석, 안방 한켠에 놓여있는 엄마의 옷장이지만, 그것을 은밀한 장소라고 말하는 감독의 시선이 완성작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기대되고 궁금합니다. (한지원)

In animation production, the closer an "independent" work comes to its essence, the more storms of unpredictable variables it brings. The more this happens, the more rigid the world's set frameworks feel. Every work I judged this time was independent precisely because it is hard to fit into any mold, and for that very reason each was appealing within its own values, a distinctive work shining freely. I extend my encouragement to all the directors who took part.

In the judging process, from among them, I selected the work that combined a clear, incisive vision, one capable of carrying the project through to the end, with a sense of freedom. Assessing completion and potential at an intermediate stage of a work was not easy.

I find myself wondering: what is a mother to a daughter? When I think of my mother as her daughter, she is the person with whom I have shared the most time at the closest range, and I believed I knew everything about her. Yet for that very reason, there are times when a mother's inner world feels, if anything, strange and distant.

A mother's wardrobe sits in one corner of the main bedroom, in the most comfortable part of the home, where we always come and go with ease. Yet I am eager and curious to see how the director's gaze, which calls it a secret place, will reveal itself in the finished work. (HAN Jiwon)